



### 리운봉대표 :

## 빙설운동의 새 열풍 불러일으켜야



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은 “기존 대학을 기반으로 빙설운동학원을 설립한다”, “조건을 갖춘 대학 및 직업학교에서 빙설운동, 빙설경제 등 관련 전공을 개설하도록 지지한다”, “빙설 종사자의 직업훈련 및 학력 교육을 강화한다”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제시했는데 이는 리운봉대표의 견의와 매우 일치하다.

현재 전국 여러 지역의 학교 등에서 광범위하게 빙설운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방의 빙설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빙설운동이 이미 정규 체육교육 체계에 편입되었다.

리운봉대표는 빙설운동이 인기를 끌면 빙설문화, 빙설장비, 빙설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산업사슬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빙설운동을 중소학교에 도입하고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경기 체계를 구축하며 과학기술수단을 활용하여 선수들을 위해 맞춤형 과학적 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공공 용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변 스키장’을 건설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리운봉대표는 앞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빙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빙설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우리 나라 빙설운동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민넷 - 조문판

### 리문휘대표 :

## 국내 친환경 시장의 육성 다그쳐야



감지해왔으며 직무 수행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리문휘는 에너지 분야의 대표로서 친환경 저탄소 전환의 새로운 과제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대상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기술연구 개발 비용이 높으며 산업생태계의 협력이 어렵다. 시장 변동에 대한 리스크 대응 능력도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그는 심층조사와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일련의 실용적인 견의를 내놓았다. “국내 친환경 시장 육성을 다그치고 친환경 수소·암모니아·알콜 제품의 다원화된 적용 싸나리오를 확대하며 주요 산업 분야의 시범 사업과 중점지역의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리문휘는 강조했다. 또한 부대정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광범위한 보급과 성숙한 기제를 갖춘 탄소 교역시장을 신속히 구축하여 친환경 수소에너지 제품의 탄소 감소 가치 전달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아준 이상 대표로서 인민을 생각해야죠.” 리문휘는 이렇게 말했다. 3년간의 직무 수행 기간 동안 그는 항상 민생의 안녕과 발전의 최전선에 집중하며 총 17건의 견의를 제출하고 2건의 주관 의안을 내놓았다. 올해도 리문휘는 기업 인재 수요와 에너지 저탄소 발전 등 핫이슈를 중심으로 고품질 견의와 의안을 마련했는바 기층 대중의 대변인이자 산업 발전의 추진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 길림일보

### 주송순위원 :

## 중국의 사상으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창조해야



끌고 참고하여 보급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초보적으로 탐색해냈다.

“일선에 깊이 들어가 조사해야만 업계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량질의 제안을 작성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그는 청해, 신강, 중경 등 지역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컴퓨팅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 친환경 전력 발전 상황을 조사하고 광둥, 호북, 산둥 등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배치 및 스마트 사회 관리의 실천 상황을 조사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미래 중국은 어떤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는 가치에 의해 주도되고 자률적으로 과제를 생성하며 다양한 비제한적 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범용 지능체를 만드는 것이다. 범용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핵심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리해하는 데 있다.” 주송순은 우리의 중화의 우수 전통문화에서 인공지능학과 발전의 뿌리를 찾고 정확한 가치관으로 지능체의 ‘마음 세우기(立心)’를 하라 건의했다.

“현재 범용 인공지능은 이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의 감초고지가 되었는데 ‘국가대업’과 관련된 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관건이다.” 전국정협 위원을 맡은 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그가 주목하는 주요 문제인바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제안을 제출했다. 그중 ‘AI 새 직업’ 과정 체계와 시범기지 구축은 전국정협 중점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인공지능 실현반을 개설하고 범용 인공지능 협동연구 협력체 인재 양성 연구용역 협동교육 연합체를 구성하여 AI 기초 및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노력 끝에 주송순은 팀을 이

/ 인민넷 - 조문판

### 증옥청대표 :

## ‘작은 고민’ 경청하고 청소년 심리건강 돌봐야



복건성 천주시 진광소학교의 한 심리상담실에서 전국인대 대표이며 학교당위 서기인 증옥청(曾旭晴)은 한 5학년 학생의 ‘작은 고민’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아이들의 심리건강은 작은 묘목이 해빛과 이슬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기에 반드시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전국인대 대표로 선거된 후 교육사업에 39년간 종사해 온 그는 시중 심리건강이라는 이 ‘성장 필수과목’에 주목해왔다.

2023년 초 청소년 심리건강 상태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그녀의 주목을 받았다. 증옥청은 문제를 가지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각급 행정주관부문, 병원, 지역사회, 교외 심리상담센터와 천주급강, 남안, 안계 등 현, 시의 10여개 기층 학교를 방문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건의 제안을 전국 량회에 적극 제출했다. 그녀는 학교의 심리건강교육을 적극 추동했고 검찰원, 병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심리위기 상담 및 개입의 ‘로컬통로’를 원활하게 추동했다.

“청소년의 심리건강 문제에 주목함에 있어서 가정, 학교, 의료,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증옥청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학교는 충분한 심리건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심리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심리 서비스 보장체계를 한층 더 보완해야 한다. 심리상담기관에 대한 전문 진입 기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심리 전문 클리닉을 보완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 방염대표 :

## 가정폭력의 경우 리혼 숙려기간 적용 제외해야



최근 전국인대 대표이며 섬서성부녀연합회 부주석이던 전국부녀연합회 권익부 겸직 부부장인 방염(方艳)은 <민법전>에 규정된 30일간의 리혼 숙려기간은 모든 협의리혼 상황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리혼 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도 리혼 숙려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리혼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반복, 위협보복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 종종 소송리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리혼소송은 사건 접수, 증거 제출, 심리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롭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리혼 숙려기간 제도의 합리성과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염은 립법, 증거 인정, 절차 최적화, 지원 보장 등 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레하면 제때에 <민법전>을 수정하고 시범 사업을 탐색하며 믿고 사용할 만한 증거 목록과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위의 데이터 공유 통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 팽정위원 :

## 12세 이하 조수석 탑승 금지해야



최근,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경변호사협회 감사장이며 중경정승변호사사무소 주임인 팽정(彭静)은 어린이 승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어린이 안전좌석, 부스터 시트(增高垫) 등 안전 구속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어린이 안전좌석 실제 사용률은 여전히 낮으며 어린이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어린이 안전 구속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팽정은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할 때 12세 이하 또는 키가 140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가 승용차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국가기준에 부합되는 어린이 안전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어린이 도로교통 집행 체계를 세분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관련 집행 지침을 출범할 것을 건의했다.

/ 인민넷 - 조문판

### 황화춘대표 :

## 심리건강검진을 중소학생 정기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건강도 검진해야 하고 마음도 검진해야 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광서족자치구 승좌시고급중학교 부교장인 황화춘(黄花春)은 심리건강 평가를 중소학교 연간 정기 건강검진 범주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황화춘은 교육종사자로서 청소년 심리건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녀는 조사중에 청소년의 심리건강에 검출률이 다소 높고 저년령화 추세를 보이며 은폐성이 강한 동시에 저년령 어린이들이 전자제품을 너무 일찍 접하면서 사고, 수면 및 학습 장애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학습 불안 등 문제보다 개입하기가 더 어렵다.

황화춘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심리건강 평가를 제도화하여 중소학교의 정기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고 신장, 시력과 같은 검진과 병행해야 한다. 교육 및 위생건강 부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형식화를 피해야 한다. 또한 의료와 교육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이진료 료색통로를 개설하며 전자심리기록을 구축하고 전 과정 폐쇄형 관리를 실현하며 교사 자원 등 여러 면에서 변경과 민족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